

연민(淵民) 선생이 쓰신 《한문문체연구(漢文文體研究)》에 보면 편지 종류가 15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독류(書牘類)에 든 것만 헤아린 숫자고, 주의류(奏議類) 가운데도 넓은 의미의 편지들이 있으니, 모두 20가지가 넘는다. 서(書)는 긴 편지고, 독(牘)은 짧은 편지인데, 신하가 목숨을 걸고 올리는 상소문이나 임금의 온 백성에게 보내는 교서(敎書)도 모두 편지형식이다.

조선시대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편지를 통해 질문하고 대답한 경우도 많은데,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사이에 7년 동안 오간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서간문학이자 철학논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편지들은 뒷날 《양선생 왕복서》 3권, 《양선생 사칠이기 왕복서(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2권으로 묶였으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편지의 나라다.

수천편의 편지 남긴 송시열

우암 송시열의 문집은 21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상대방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의 편지를 썼던 것이다. 문집 215권 가운데 125권 이상이 편지니, 그는 수천편의 편지를 쓰며 살았던 셈이다. 원고를 구하지 못해 문집에 실지 못한 편지까지 생각해 보면, 그는 날마다 편지를 쓴 셈이 된다.

옛 사람들은 편지 하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썼다. 뒷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또는 자신의 문집을 엮을 때 원고로 삼기 위해서도 반드시 편지 초고를 남겼고, 편지를 받은 사람도 그 편지를 잘 간직했다. 문집을 엮을 때 자기의 편지 아래에 상대방의 답장을 부록으로 신기도 했고, 편지를 보내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간직했던 편지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의 문집에 실기 위해서였다. 송시열의 문집은 그 뒤 다시 엮었는데, 9권으로 된 《송서습유(宋書拾遺)》는 대부분 편지다. 문집이 나온 것을 본 친지들이 미처 돌려보내지 못한 편지를 추가로 보내 속집이 엮인 것이다.

편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집집마다 조상들의

옛 사람들의 숨결 느껴지는 선인들의 편지

우리 지성사를 수놓은 서간들

허경진 | 목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따금 골동품가게나 고서점에서 편지더미를 뒤지다보면 옛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름 있는 문인의 편지라도 만나는 날이라면 마치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즐거워진다.”

옛 편지가 몇편씩 남아 전하고, 골동품 가게나 고서점에도 수십편씩 쌓여 있다. 이따금 그 편지더미를 뒤지다보면 옛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사랑과 미움, 문학과 철학, 권모술수에서 일상적인 안부편지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름 있는 문인의 편지라도 만나는 날이면 마치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즐거워진다.

내 서재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들라면 나는 단연코 허균의 편지를 든다. 허균은 역적으로 죽었기에, 그의 편지는 모두 불태워 없어졌다. 역적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가 용케 살아 남았다. 당대 최고의 시인을 들라면 모두들 석주 권필과 동악 이안눌, 그리고 교산 허균을 들었는데, 권필이 광해군 시대의 어지러운 정치를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가 매맞아 죽자, 허균이 “다시는 시를 짓지 않겠다”고 이안눌에게 보낸 편지다. 허균은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지만,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는 나에게 숨은 사연들을 하소연하고 있다.

연민 선생의 편지

나는 연민(淵民) 선생에게서 우리나라 선비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 다른 점도 그렇지만 특히 편지를 쓰시는 태도가 더욱 그렇다. 대학원 조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수많은 편지 심부름을 했는데, 선생

님께선 꼭 초고를 남기셨다. 요즘에는 복사기가 생겨서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원고지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시고, 또 한 부를 써서 간직하셨다. 뒷날 문집에 실기 위해서였다.

평생 쓰신 편지는 모두 문집에 실으셨으니, 편지 하나 하나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신 셈이며, 누가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쓰신 것이다. 그 가운데는 연애편지도 있고, 논쟁을 담은 것도 있으며,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도 있다.

요즘 사람들은 편지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대개 연애편지는 소중히 간직하지만, 연애가 깨지면 물론 다 불태워 버린다.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편지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차마 불태워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편지도 보기 드물다.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보낸 편지는 대개 한번 읽고서 내버리게 된다. 특히 이메일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는 수백명에게 똑같이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전혀 쓸데없는 편지가 하루에 몇 통씩 들어오기도 한다. 이쯤 되면 편지 공해라고 할 것이다. 저머니 속까지 휴대용전화가 들어와서 편지 쓸 기회가 아주 없어진 요즘, 옛 제자의 편지가 더욱 기다려진다. 청마 유치환이 아니더라도,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